

머리말

호서대 교수로서 두 번째 안식년을 맞은 나는 아내, 막내딸과 함께 6개월 동안(2014.2.27.-8.15) 미국 스포츠여행을 했다. 메이저리그(MLB)를 중심으로 프로스포츠는 물론 대학스포츠, 아마추어와 생활스포츠, 스포츠시설, 스포츠산업의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미국 스포츠 현황을 꼼꼼히 살펴 보았다. 여행을 하면서 작성한 기사를 스포츠큐(www.sportsq.co.kr)에 40회 동안 연재를 했다.

초반 여행은 MLB 스프링캠프 여행과 휴스턴 근처지역 여행을 주로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텍사스주 휴스턴-애리조나주 글렌데일-텍사스주 샌안토니오-캘리포니아주 오스틴-달라스 지역을 여행했다.

두 번째 여행은 55일간 미국의 중부 및 동부, 캐나다지역을 여행하는 강행군이었다. 2014년 5월 23일 금요일, 드디어 여행을 시작했다. 집사람, 처형, 막내딸 여자 세 분을 모시고(?) 운전사 역할을 하며 약 두 달간 여행길에 올랐다.

나는 운전을 하고 집사람은 호텔예약 및 식사를 담당하고, 막내딸은 내비게이션 맡았으며, 처형은 집사람과 함께 식사를 담당했다. 환상의 콤비 4명이 오전 10시10분에 드디어 휴스턴을 출발했다. 55일간 일정은 아래와 같다.

휴스턴 출발-루이지애나주 뉴올리안즈-앨라배마주-플로리다주 텔러헤시(FSU)-게인즈빌(UF)-올랜도(디즈니월드)-데이토나비치-세인트 오거스틴-잭슨빌-조지아주 사바나-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분홀-머틀비치-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버지니아주 체서피크-노퍽 타이저-워싱턴디시-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오리올즈-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뉴저지주 애틀란틱시티-뉴욕주 뉴욕메츠 시티필드-코네티컷주 예일대-로드 아일랜드주 뉴포트-매사추세츠주 보스턴(레드삭스)-MIT-하버드대-캐나다 퀘벡-몬트리올-오타와-토론토(블루제이스 로저스센터)-나이가라폭포-미시간주 이스트 랜싱(MSU)-칼라마주(WMU)-일리노이 시카고-스프링필드(링컨생가)-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카디널스 부시 스타디움)-테네시주 멤피스(엘비스프레슬리 고향)-아칸소주 리틀록(빌클린턴 고향)-텍사스주 휴스턴.

55일간의 여행을 포함해 미국 안식년 6개월 동안 약 3만 마일 여정을 마쳤다. 휴스턴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미국 독립야구단 경기를 관전하면서 귀국 후 국내 독립야구단 창단에 대한 구상도 했다. 미국에서 6개월은 야구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만든 소중한 시간이었다.

부족한 글이나마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출판을 맡아주신 아이새롬 이형권 대표, 그리고 황형범 팀장, 유지웅 인턴, 김성권, 안연화 호서대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스포츠큐 류수근국장에게도 감사함을 전한다.

박정근교수의 미국스포츠여행

박정근 지음

눈 앞에서 펼쳐진 추신수의 플레이에 매료되다

나는 전날 시범경기에서 추신수의 플레이를 직접 관전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지난 3월 12일 서프라이즈 구장을 방문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연습 구장인 카멜백 렌치를 먼저 찾아 LA다저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유명 선수, 코치들을 만나 유익한 시간을 가졌고 추신수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서프라이즈 구장으로 이동했다.

구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기가 시작한 뒤였다. 1번 타자로 나온 추신수는 첫 타석을 보지 못했지만 추신수가 타석에 들어선 모습, 수비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했다.

비록 경기는 큰 점수차로 패했지만 추신수의 경기를 직접 관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텍사스 레인저스와 LA 엔젤스와의 시범 경기에 많은 관중이 모였다

● — 추신수 신드롬이 불고 있는 댈러스

추신수는 올 시즌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간 1억3000만 달러로 계약을 체결했다. 추신수의 이적 이후 10만 명 정도의 교민들이 살고 있는 댈러스 지역은 '추신수 신드롬이 불고 있다.

추신수로 인해 그가 졸업한 초·중·고 동문회가 결성됐고, ‘고추(Go Choo)클럽’ 등 여러 가지 서포터스도 생겼다. 거기에 삼성 등 대기업이 레인저스 팀의 스폰서로 합류했다.

이만하면 슈퍼스타 한 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할 추신수와 류현진을 중심으로 임창용, 윤석민까지 모두 좋은 성과를 거두길 희망한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국내 야구선수들은 물론 야구관계자들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많은 선수들이 야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인프라가 구축되기를 바란다.

시즌 전 텍사스 레인저스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는 서프라이즈 구장 내 클럽하우스



● 새로운 목표가 생기자 ‘추신수 리얼 스토리 출간’

나는 추신수를 높게 평가한다. 류현진과 윤석민은 국내무대에서 7년 동안 특급 선수로 활약한 뒤 미국 메이저리그에 왔지만 추신수는 고교 졸업 후 곧바로 미국 메이저리그에 도전해 5~6년 동안 마이너리그 생활을 거쳤다.

박정근교수의 미국스포츠여행

추신수가 돋보이는 데는 온갖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메이저리그의 꿈을 이루어낸 선수이기 때문이다. 학자로서 기회가 된다면 추신수에 관한 리얼 스토리를 영문판으로 출간하고 싶은 것이 나의 새로운 목표다.



시범경기에서 타석에 들어서는 추신수. 박정근 교수는 추신수에 관한 리얼 스토리를 영문판으로 출간하고 싶은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물론 추신수의 허락을 받아야겠지만, 만약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포츠심리학 전공 교수로서 연구의 주제로도 손색이 없다.

이번 안식년 기간 동안 추신수를 직접 만나 그와 관련된 책 및 논문 작업 그리고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

시범경기 동안 애리조나 스프링캠프를 찾아 다녔지만 정규시즌이 시작되면 추신수 경기를 직접 관람하기 위해 텍사스 레인저스의 알링턴 구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허구연 "존경받는 해설자로 은퇴하고 싶다"

허구연 해설위원과의 2박3일 심층 인터뷰 <상>

나는 애리조나 스프링캠프에서 허구연 해설위원을 만나 2박3일 동안 함께 지냈다. 허 위원과 함께 추신수와 류현진이 활약하는 텍사스 레인저스와 LA 다저스 팀의 연습현장을 방문했다.

2박3일 동안 허구연 위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야구팬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허 위원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는 "그렇게 하라"고 흔쾌히 허락했다.

그와 인터뷰를 통해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 야구를 시작한 인연부터 야구에 대한 애착, 그리고 야구의 천부적인 소질과 공부하는 야구 등 시시콜콜한 야구의 추억부터 메이저리그 관련 소식과 국내야구 발전을 위한 대책 등 심도 깊은 얘기까지 다채로운 야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허구연 해설위원과의 심층 인터뷰를 두 차례로 나눠 다루려고 한다. 그 첫 번째로 허구연 위원이 솔직하게 털어놓은 선수 시절에 대한 추억과 야구 해설을 하면서 느낀 해설위원으로서의 자세 등을 정리했다.



지난달 3월 11일 허구연 해설위원과 카멜백 렌치 구장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 ——— 초등학교 때부터 4번 타자

나는 허구연 위원의 선수 시절에 대한 이야기로 가볍게 인터뷰를 시작했다. 허 위원은 학창시절부터 ‘잘 나가는(?) 야구선수, 공부하는 야구선수’였다고 말하면서 현재 선수들도 공부를 병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어떻게 야구에 입문하게 됐나.

부산 대신 초등학교 5학년 때 각 반에 1명씩 야구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때 반대표로 나갔는데 눈에 띄었는지 감독, 교장, 교감 선생님이 집까지 찾아와 야구를 꼭 시키라고 조를 정도였다. 하지만 집에서 반대가 심했다. 부모님은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야구를 시킬 생각이 없었다. 그렇지만 학교 측에서 완곡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부모님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야구를 해도 좋다고 승낙했다.

- 당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운동을 기피했다. 그래도 형제들이 많으면 1명 정도는 운동을 시켜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할 것 같은데,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나.

5형제 중 넷째다.

- 어렵게 야구를 시작했는데 잘 했나.

초등학교 5~6학년 때 부산 대신초등학교가 항상 우승을 차지했고 난 그 팀의 주전이였다.

- 허 위원은 공부도 잘했던 야구선수라고 했다. 당시 경남중학교에 시험을 치고 입학했다고 들었다.

내가 진학하려던 경남중학교에는 특기자 선발제도가 따로 없어 시험을 통해 입학할 수밖에 없었다.

- 당시 공부와 야구 병행이 가능했나.

중학교 1학년 때 주전으로 뛰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다. 가끔 3학년 선배들이 교실로 찾아와 ‘공부 좀 그만해라. 너 때문에 우리 힘들다’ 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선생님들도 ‘허구연은 야구하면서도 공부를 하는데 너희들은 뭐냐 이놈들이’ 라면서 야단치기도 했다.

- 당시 경남중에는 좋은 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다. 그때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했더라면 정말 좋은 본보기가 됐을 것 같은데.

대대로 경남중학교 야구부 출신 중에는 공부를 잘하는 야구선수들이 많았다. 최덕홍 선배는 야구선수 출신으로 대대장을 했고, 마동명 선배는 세브란스의대를 나와 뉴욕에서 정형외과 의사가 됐고, 장태영 선배는 서울상대를 졸업했다.

- 대학시절 인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다.

팬들이 캠퍼스는 물론 합숙소까지 찾아오곤 했다. 대부분 대학 교정 안에서 이야기만 나누고 돌려보냈다. 그래서 나중에 원성이 자자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커피도 한 잔 안 사준다고...

- 선수 생활은 언제까지 했나.

대학졸업 후 한일은행에서 선수생활을 했고 국가대표까지 역임했지만 27살 때 큰 부상을 당하면서 야구를 그만뒀다.



카멜백 렌치 구장에서 허구연 해설위원과 LA다저스 시범 경기를 지켜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 대학 시절 공부와 야구를 병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대학 시절에 4번 타자와 홈런왕을 하면서도 중간고사가 있으면 공부해서 시험도 봤다. 그 당시만 해도 후배들이 내가 수업에 들어가는 이유를 잘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후배들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야구 이외의 다른 길도 많은데 공부에 소홀하면 선택의 폭이 많이 좁아진다. 나는 당시 학교를 다니며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정세균, 홍준표 같은 정치계 거물들도 자연스럽게 친구가 될 수 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야구만을 집중적으로 하는 선수들은 친구 사귀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참 안타깝다.

- 석사학위도 갖고 있다고 들었다.

대학원 시험볼 때 합격할 줄 몰랐다. 그런데 어려운 경쟁을 뚫고 무사히 합격한 것이다. 나중에 학교에서 놀랐다고 들었다. 고인이 되신 김상협 전 총장님이 '허구연이 학교에 이야기도 안하고 시험을 쳤네' 라면서 특히 좋아하셨다.

- 마지막 꿈은 영원한 해설자.

현재 허구연 씨는 국내 대표적인 야구 해설위원 중 한 명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해설을 통해 팀의 구체적인 전술이나 작전 등을 파악하고 현재 야구의 문제점 등을 속 시원하게 알 수 있다. 그는 야구 해설을 통해 가장 보람을 느끼고 존경받는 해설자로 은퇴하고 싶다는 속마음을 밝혔다.

박정근교수의 미국스포츠여행

- 어떻게 해설자가 됐나.

법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었는데 모 방송국에서 방송해설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심사숙고 끝에 결국 교수직을 포기하고 해설자로 나서게 됐다.

- 해설자가 된 것에 대해 후회는 없나.

후회 없다.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 정치권이나 야구 관련 기관에서 허 위원을 데려가기 위한 러브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존경받는 야구 해설가로 남기 위해선가.

정치권에서 제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하고 싶은 것은 해설자다. 질문에서처럼 존경받는 해설자로 은퇴하고 싶다. LA 다저스의 빈 스킨리 해설자는 85세인 지금도 야구해설을 하고 있다. 다른 분야의 일보다 지금은 야구계의 현안 문제가 내게는 더 중요하다. 특히 정치나 야구 관련 기관은 내가 판단했을 때 야구계나 체육계에서 일을 할 만큼 했다 싶을 때 해도 늦지 않다.

- 요즘 해설자 중에는 야구선수 출신이 아닌 분들도 많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는 없나.

개인적인 입장은 선수 출신들이 해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술이나 작전 플레이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는 야구를 경험한 사람이 더욱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비 야구선수 출신들도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할 수 있지만 필드에서 뛰어본 경험이 동반된다면 더 좋다고 생각한다. 특히 해설자의 경우 찰나의 순간 어떻게 저런 플레이가 나왔는지, 결과는 어떤지, 당시 작전은 무엇인지 등을 시청자들에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풍부한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



허구연 해설위원은 "야구 해설에 가장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다. 존경받는 해설자로 은퇴하고 싶다"고 밝혔다.

- 해설자와 캐스터의 차이가 무엇인가.

해설자는 야구 현장 전문가로서 야구 기술, 이론, 규칙을 바탕으로 플레이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 왜 저런 플레이를 했는지를 설명해야 하고 캐스터는 뉴스, 히스토리, 스토리, 기록,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전달해주는 전문가여야 한다. 때문에 방송에서는 캐스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MBC 스포츠플러스의 한명재 캐스터는 국내야구, 메이저리그 모두 정통하다. 다양한 자료와 역사, 뉴스를 섭렵하고 방송에 임한다. 그러면 나는 플레이 위주만 설명하면 된다. 그만큼 캐스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중계의 현실은 캐스터들이 한 가지 종목에만 전념할 수 없는 여건이라 안타깝다.

- 해설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후배 양성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캐스터는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해설은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헤쳐 나가야 한다. 그래서 해설은 감독, 코치, 스타 출신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감독 출신 해설자는 경기를 넓게 보는 경향이 있다. 해설은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기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설자가 되기 원하면 스스로 능력을 키워야 하고 좀 더 깊은 연구와 자료를 평소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캐스터는 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캐스터는 음성, 발음, 순발력, 기록 등 전문성과 함께 야구에 관한 기본 지식 교육이 필요하다. 이들은 중계를 주도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 요즘 야구에서는 여자 아나운서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좋은 캐스터는 수준 높은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측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방송사들이 시청률 경쟁으로 인해 진행자의 외모에 신경쓰는 점도 이해한다. 최근에 내가 알고 지내던 여자 아나운서가 결혼을 했다. 그는 내게 기혼 아나운서의 고민을 토로했다. 나는 기혼자라는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전문성을 더 갖추라고 조언했다. 앞으로는 여자 아나운서들도 단순히 '브라운관의 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시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허구연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수"

허구연 해설위원과의 2박3일 심층 인터뷰 <하>

애리조나 스프링캠프에서 허구연 해설위원과 함께 2박3일을 동행하면서 야구를 넘어 스포츠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그와 가장 오랫동안 이야기한 부분은 '공부하는 야구선수'였다. 허 위원은 미국 선수들을 보면 아침 일찍 연습한 뒤 수업에 들어가고 방과 후 또다시 연습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모습이 자연스럽다고 평가하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모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구연 위원과의 두 번째 이야기에는 '공부하는 야구선수'를 비롯해 학생선수들의 장래, 스포츠 복지 등 질적인 스포츠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생각을 담았다. 메이저리그에서 겪었던 무궁무진한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었다.

● — 공부하는 야구선수의 자세를 확립해야

허구연 위원은 '공부하는 야구선수'는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같이 스포츠를 하나의 문화처럼 여기고 참여하는 마인드가 바탕이 되어 하며 운동을 그만두더라도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미국은 스포츠를 단순히 게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문화처럼 여긴다.

미국에서는 코비 브라이언트, 르브론 제임스 등 NBA 선수를 모르면 촌답으로 여긴다. 여자도 스포츠를 알아야 하는 건 상식이다. 미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통해 체력을 키우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며칠간 밤새워 일해도 끄떡없지만 운동이 부족한 한국인들은 체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특히 유아·초·중·고 시절에 체육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등한시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 지난해 야구계도 공부하는 선수 확립을 위해 주말리그를 실시했는데 고등학교 팀부터 시행했다. 축구처럼 초등학교부터 점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나.

맞는 말이다. 초등학교 교육 과정을 습득하지 못한 선수들에게 고교, 대학에서 공부하라는 것은 무리다. 당장 미국처럼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교육부가 주도해서 공부하는 운동선수 제도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대부분 미국 대학의 학생선수들은 아침 일찍 연습한 뒤 수업에 들어가고 방과 후 또다시 연습하고 하면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메이저리그 20승 투수인 마이크 무시나는 스탠포드대학 경제학사 출신으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외에도 공부한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많다. 이와 같이 하려면 공부하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 환경, 선수들과 학부모들의 인식 전환도 있어야 한다.



허구연 해설위원은 운동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MBC 스포츠플러스 '2014 메이저리그&프로야구 중계'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 — 공부한 메이저리거 표상 '마이크 무시나'

메이저리그에서 18년 동안 활약한 마이크 무시나는 잘 생긴 외모와 스탠포드대학 경제학과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메이저리그의 백작'으로 통한다.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270승 153패, 방어율 3.68을 기록했다. 골든글러브 7회나 수상한 그는 탈삼진 2813개로 메이저리그 역대 19위에 올랐고 대부분의 시즌에서 방어율과 탈삼진 부분에서 톱5 안에 포함됐다. 각각 1차례씩 완봉승과 다승 부분 1위를 경험했던 그는 데뷔 2년차인 1992년부터 은퇴한 2008년까지 17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한 메이저리그 대표적인 투수였다.

- 한국에서는 마이크 무시나와 같은 선수를 양성하기 어렵나? 문경 글로벌 선진학교는 스포츠를 활용해서 글로벌화하는 학교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경북 문경에 있는 문경 글로벌 고등학교는 매일 2~4시간만 단체 훈련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공부를 한다. 매년 선수 10명씩 뽑는다고 들었다. 내가 아는 지인 중 한 사람은 자녀가 그 학교에 다니면서 야구를 하는데 너무 행복해했다. 아이가 야구를 좋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니 야구의 순기능적 측면이 강화되는 것 같은 생각이다. 그리고 그 학교는 한 학기를 미국 연수를 통해 야구와 공부를 경험하도록 한다고 들었다. 이 때문에 이 학생들은 졸업하면 야구행정을 선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부하는 학교를 위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내가 듣기로는 올해부터 고등학교 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 캄보디아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양산 원동중 선수들이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그들 중에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사는

나라인지 부모들의 고마움을 느꼈다고 말하는 선수들도 있었다. 캄보디아, 베트남에 야구장을 건립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베풀 수 있는 나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야구를 통한 실천이다. 먼 훗날 한국인들이 캄보디아, 베트남 야구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역사적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다.



지난달 3월 12일 허구연 해설위원이 묵고 있는 호텔 앞 수영장에서 인터뷰를 했다

- 야구 선수들은 야구를 그만 뒀을 때 야구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기가 쉽지 않다. 좋은 해결책이 있나.

이름 있는 야구선수나 무명선수도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 운동선수 출신들은 기본적인 체력이 좋아 남들보다 몇 배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 지인 중 아들이 야구선수였는데 선수로서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 대학교 2학년 때 야구를 그만두고, 신문 방송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한 그는 비즈니스 잡지 표지모델로 등장할 정도로 성공했다. 사교적인 성격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다. 이처럼 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더라도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쳐 주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 그래도 야구선수라면 야구를 통해 성공하고 싶지 않을까.

당연하다. 하지만 야구선수 100명 중 성공하는 선수가 10명이라고 치면 나머지 90명은 희생당한다. 그래서 '공부하는 선수상' 확립을 위해 교육부나 정부차원에서 개혁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 스포츠 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

허구연 위원은 학교와 사회, 엘리트 체육이 연계를 통해 스포츠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종목의 체육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밝혔다.

- 스포츠 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정치인들은 복지를 강조했는데 건강 복지가 최우선이라 생각한다. 건강을 지키는 데는 운동만큼 좋은 것이 없다. 학교 체육, 사회 체육, 엘리트 체육이 연계해서 스포츠를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공교육 체육 수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의료비를 절감하고 질병 예방을 위해서도 체육이 필요하다. 유년시절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 엘리트 스포츠에만 중점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올림픽 금메달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 엘리트 스포츠도 중요하지만 생활 체육, 학교 체육과 연계를 통해 발전해야 한다.

- 스포츠 복지를 위해서는 체육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스포츠 시설의 인프라는 상당히 중요하다. 프로, 학원 체육,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육 시설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이 너무 유권자들의 표면 의식한 낭비적인 시설 투자는 이제 재고돼야 한다.

- 미국에서 장애인들이 단체로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를 구경하는 모습을 보니 부러웠다.

그것이 바로 스포츠의 순기능이자 복지의 일부이다. 장애인 복지도 매우 중요하다. 나도 장애인들이 스프링 캠프의 시범 경기를 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 국내에도 야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물론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야구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고양시에서는 현재 다문화가정들을 위한 야구팀 창단을 지원하고 있다. 고양 원더스 구단주 허민 대표는 원더스 야구팀을 위해 매년 40억 원을 지원하면서 새로운 도전 기회를 주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물론 야구인들도 매우 고마워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을 갖추는데 고양시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 허구연 해설위원이 말하는 메이저리그 에피소드

허구연 위원은 미국 메이저리그와 인연을 맺은 지 30년이 넘었다고 한다. 다양한 선수들과 팀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겪은 에피소드 또한 무궁무진하다.

- 메이저리그와의 인연은 언제부터였나.

1984년 처음으로 플로리다주 베로 비치를 방문했을 때가 처음이니 30년 정도된 것 같다. 나도 매년 방문하지만 메이저리그 구단을 속속들이 알기란 쉽지 않은 것 같다.



허구연 해설위원과 인터뷰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한다면.

MLB 라커에서는 사진을 못 찍게 돼 있다. 대다수의 선수들이 알몸으로 라커를 지나다녀 사진 찍었다가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 MLB 모 구단 홍보담당자가 사진을 찍는 한국기자들에게 모두 나가라고 고함지른 일화가 있다. 이처럼 재미있는 일들은 비밀비재하다.

- 연습할 때 보니 푸이그는 영어를 못하는 것 같다.

푸이그는 영어를 못한다. 쿠바에서 망명했기 때문에 에스파냐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직 어려서 그런지 말썽도 많이 피우는 편이다.

- 야구가 다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다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IOC와 MLB가 파워게임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잘하면 도쿄 올림픽 때 재진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 현재 야구계에 가장 개선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야구계에도 개선해야 할 점들이 물론 존재한다. 특히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한다.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앞으로 조금씩 고쳐 나가야할 것이다.



지은이 박정근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체육행정학 석사, 스포츠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호서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체육 전공 교수, 스포츠과학대학원 축구학과와 야구학과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교외활동으로는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 원장, (주)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 CEO, (사) KBO 야구발전위원, 독립야구단 연천미라클 구단주,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유소년스포츠지도사연수원 원장을 맡고 있다.